

믿음과 기적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특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그분이 매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느님은 영적, 육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 그분을 완전히 믿고 뜻에 따라야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힘입어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각자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기적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겸손하게 그것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축복의 은총을 받게 된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면, 큰 기적은 물론이고 작은 기적조차 바라는 것은 욕심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믿음’의 뜻은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확신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뜻에 따르는 것’이다. 그와 같은 관계가 100% 성립되어야 믿는 대상과 완전한 일체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100% 믿음을 원하신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마태오 17,20 참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능력 이상의 것에 늘 관심을 갖고 그와 같은 초능력을 갖기를 열망한다. 그리하여 남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으로 분류되기를 바란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인데, 이러한 종교는 사탄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호기심과 욕심을 충족시켜 그들을 악의 늪으로 빠지게 한다.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믿음 생활을 가르치는 교회를 거부하고 미신적이고 환상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비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런 종교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은 그 심리 속에 영적, 육적으로 정상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장 욕심을 채워주는 듯이 보이는 달콤한 현상에 넘어가 헤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못하고 더욱더 깊은 악의 늪에 빠지게 된다. 욕심을 쫓아 환상과 착각 속의 비현실적 삶을 살아갈 뿐이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 그 가운데서 주님의 기적을 깨닫게 되고 우리 삶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작은 기적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에 하루에도 수없이 감사함을 표현하고 영적인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며, 악을 소멸시키고, 악으로 기우는 격정들을 약화시키며,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어 영혼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은 지혜의 정점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 주위에서는 어떤 좋은 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누구라도 사악한 타락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 성 에프렘 시리아인 수도자

누구라도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은 자기 주인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흔히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불신이 낳은 딸입니다. 거만한 영혼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노예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두고 있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라는 상태에 이르러 어둠을 두려워하고야 맙니다.

- 성 요한 클리막스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든 종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을 전혀 알지 못하며,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고, 두려움에서 오는 어떤 떨림도 그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 성 에프렘 시리아인 수도자

괴할 수 없는 죽음과 죄인을 기다리는 영원한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만일 그가 매일 저녁마다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또한 아침마다 지난 밤을 어찌 지새웠는지,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본다면 말입니다.

- 성 도로테오스, 가자의 원로 수사

죄는 사람을 겁쟁이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사람을 대담하고 용기있게 만듭니다.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소 식

■ 한국 정교회 24인 수호 성인 축일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24인 수호 성인 축일을 지냈습니다. 2일 저녁에는 대만과와 아르토클라시아 예식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3일 오전에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 로만 카브착 신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요한 박인곤 보제의 집전으로 축일 조과, 성찬예배와 소티리오스 대주교 추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여러 지역 성당에서 많은 신자들이 참여했고, 예배 후에는 사랑의 오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축일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 성당 음식 축제 개최

앞서 공지되었듯, 다음 주일(16일) 성찬예배 후, 성당 마당에서 세계 음식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 포스터가 제작되었으니 주변에 널리 홍보해주시기 바라며, 준비 과정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양구 성당 보수공사

양구 성당과 사택 건물의 수리 및 보수공사를 위해 서울 성당 장년회가 지난 7일(금)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작업을 돕고 주일 예배를 집전하기 위해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도 양구에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작업이 무사히 마무리 되길 기원합니다.



성모 안식 성당

표지 사진 설명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는 안식하신 후, 올리브산 서쪽 기슭에 있는 계세마니 동산의 무덤에 묻히셨다. 그 무덤 위에 성모 안식 성당(사진)이 건축되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다.

이교도에 의해 성당은 몇 차례 파괴와 복구가 반복되었으며, 12세기 말에는 아랍의 지도자 살라딘이 성모님의 무덤이 있는 지하 성당만 남겨두고 모두 파괴하였다. 이슬람교도들은 마리아를 '예언자(예수)의 지극히 복된 어머니'로 공경했기 때문에 지하 성당은 파괴하지 않고 경배했다고 한다.

1757년 성당의 관리권이 그리스 정교회에 이관되었으며, 현재는 그리스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성모님께서 안식하셨는지, 살아계신 채로 승천하셨는지에 대한 교회간의 교리가 다르다. 그러나 세계 공의회는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에 대한 경의를 교리로 확실하게 정의해 놓았다. 이 교리와 거룩한 교부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모 마리아는 안식하셨고 무덤에 묻히셨다. 이에 따라 정교회는 성모 안식 축일에 부르는 성가를 통해 성모님이 안식하셨다고 노래한다. 또한 성화도 성모님이 안식하신 후, 침상에 누워 계시며 주위를 거룩한 사도들이 둘러싸고 있고, 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혼을 품에 안고 계신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모 마리아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1950년 교황 피오 12세의 결정으로 '성모 마리아가 살아계신 채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교리(Assumptio)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인 교회의 거룩한 전통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이고 나누이지 않는 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